

## 용수 스님의 5분 명상

# 유용한 수행 4가지

1. 역행명상 - 모든 안 좋은 상황을 좋게 봐요. 마음의 힘을 키우고 수행의 기회로 삼아요. 안 좋은 것도 좋게 볼 수 있어요. 좋은 태도를 가지면 저항이 없어지고 감당할 수 있어요. 원치 않는 현상에 마음을 열면 상당한 이로움이 되어요.

2. 자비의 동기 - 무엇을 하든 자비의 동기로 하려고 합니다. 자기만 생각하면 힘들고 타인을 위한 동기를 가지면 힘이 생겨요. 항상 자비의 동기를 확인하고 가지려고 합니다.

3. 허물 밝히기 - 에고의 방식은 자신의 허물을 숨기려고 합니다. 허물은 숨기면 커지고 밝히면 작아져요. 크고 작은 모든 허물을 널리 알리세요. 인정과 정화는 동시에 일어나요.

4. 의미 있는 멈춤 - 잠시 멈추고 몸과 마음을 쉬어요. 아무것도 안하는 편안한 멈춤을 짧게 자주 누려보세요. 회복과 통찰은 멈춤 속에 있어요. 심호흡을 한번 고르고 Relax!





## 김종미 교수의 차와 사람을 잇다 ④ 고수차

# 월진월향의 '마시는 골동품'

〈越陳越香〉

중국 알리바바의 창시자 마윈은 보이차 전도사다. 보이차를 좋아해서 혼자 즐기는 데 그치지 않고 보이차 보급에 오랜 동안 공을 들였다. 그는 여러 차들 중에서 특히 보이차를 좋아하는 데, 그 이유는 보이차의 성질이 IT업계의 속성과 반대되기 때문이다. 마윈은 중국 IT업계의 기념비적 인물이다. 알리바바를 창업하여 중국인의 소비 패턴을 전자상거래로 완전히 바꿔놓았고 알리페이, 타오바오 등 여러 영역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 IT업계는 정신적 압박이 큰 분야이다. 마윈 같은 세계적 초강자라도 과학기술의 최첨단에서 조금만 주춤하다보면 바로 신기술에 밀려난다는 생각에 늘 긴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성이 시간의 첨단을 달려가면 감성은 더 아날로그적인 자연에 일부러라도 머물게 해 주어야 한다. 생명의 균형을 맞춰주어야 한다. 도시 한 복판에서, 사무실 책상에서 바로 접할 수 있는 자연의 정수가 바로 차이다. '차(茶)'라는 글자를 들여다보면 '풀'과 '나무' 사이에 '사람'이 들어가 있다. 차를 마시는 순간 차를 마시는 사람은 대자연의 숲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차는 대자연의 선물이요, 신선의 이슬이다.

중국 무술영화의 스타 리렌지에(이연걸)도 젊어서 무술영화 촬영 중에 부상을 많이 당해서 오십을 넘긴 이후부터는 건강관리에 열심이다. 그런 리렌지에가 선택한 것도 보이차였다.

마윈과 리렌지에는 보이차 사랑으로 의기투합했다. 알리바바 주식이 미국에 주식시장에 상장해서 한창 주가를 올리던 2013년에 그 바쁜 마윈은 어렵게 일정을 비워 리렌지에와 함께 윈난성 보이차 산지를 견학했다. 그리고 이듬해 베이징에서 공동으로 보이차 사업에 투자했다.

마윈과 리렌지에는 아마도 스타벅스에 버금가는 보이차 비즈니스 제국을 창업하고 싶었던 것 같다. 리샤오룽(이소룡)의 뒤를 이은 쿵푸 스타 리렌지에의 이미지에 마윈의 창조력을 결합하여 타이지젠(TaijiZen, 태극권+젠)이라는 회사를 만들고 보이차를 출시했다. 당시는 중국이 세계 각국에 공자학원을 설립하고 중국 중심주의의 확산에 관심을 기울이던 때였다. 타이지젠의 창업은 중국 공산당의 행보와도 맞았다. 하지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인지 타이지젠은 성공하지 못했다.

인간의 세계야 어찌 돌아가든 차나무는 묵묵히 한 자리에서 다가오고 멀어져가는 사람들을 바라본다. 성공한 사람이라고 해서 더 반가워하지도 않고 좌절한 사람이라고 해서 더 얕잡아보지도 않는다. '하늘은 무심하다'는 말처럼 차나무는 무심하다. 그저 찻잎을 피워 공평하게 나누어준다.



수백년된 천연원시림 고차수 찻잎으로 만든 보이차를 고수차라고 한다.

**윈난성 천연원시림 고차수잎**
**오래 묵을수록 향기·맛 더해**

윈난성의 천연원시림 차산에는 수 백 년을 살아 온 차나무들이 있다. 농약은커녕 사람의 발길도 거의 닿지 않는 깊은 산 속에서 수 백 년을 살아 온 차나무를 고차수라 하고, 그 고차수 찻잎으로 만든 보이차를 고수차(古樹茶)라고 한다. 평지에서 자란 차나무에 대비되는 말이다.

수 백 살의 차나무가 무심히 내어주는 한 잔의 차, 그 무심한 차 한 잔에 생각을 내려놓고 마음을 쉬어가자.

고차수로 정성껏 만든 보이차는 한 해 한 해마다 정말 맛있어진다. 일 년이 지나면 달아진 향기만큼 십 년 후에는, 또 이십 년 후에는 어떻게 변해갈까 기대하면서 바라보게 된다. 그래서 보이차를 나와 놀아주는 차라고 했던가. 보이차는 함께 나이 들어가는 차이다.

고차수로 만든 보이차는 햇차보다 오래 묵힐수록 값어치가 올라간다. 그래서 '마시는 골동품'이라고도 한다. 오래 묵을수록 더욱 향기롭고 맛있어진다고 해서 '월진월향'이라고 한다. 할아버지가 사서 손자가 마신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보이차는 2~30년이 지났을 때 차의 맛이 최고조에 달한다.

마윈이 보이차 차산을 견학하고 보이차를 만들었듯이 나 역시 같은 궤적을 밟았다. 본래 나는 차 애호가였다. 보이차는 90년대에 한국인 최초로 베이징대학 교수로 재직할 때에 베이징대학 당위서기로부터 소개받았다. 중국 대학은 교수·연구를 총괄하는 총장과 행정을 총괄하는 당위서기가 최고책임자이다. 중국 공산당 간부들은 다 보이차를 마신다고, 건강에 좋기로 보이차만한 차가 없다고, 불필요한 체내지방을 빼준다고 열심히 설명해주던 당위서기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처음에는 베이징 보이차 도매시장인 마롄다오에서 보이차를 구매했는데, 믿을만한 곳이라고 소개를 받아 구입을 해도 한국에 와서 펼쳐보면 기대했던 차가 아닌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차라리 윈난성 차산에 직접 가서 내가 먹을 보이차를 내가 만들어 두고두고 익혀먹자고 마음먹었다.

그런데 윈난성 천연원시림 차산을 방문하고 나서 마음이 크게 달라졌다. 평균 해발 1500미터 깊은 산의 차나무들을 보고 너무 큰 감동을 받았다. 윈난에 가면 수령 800년, 1000년, 3200년 차나무들을 볼 수 있다. 차산마다 가장 오래된 차나무를 차나무의 왕이라 해서 차왕수라고 부른다. 차산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차왕수에 경배를 하러 간다. 천 년이 넘은 차왕수는 거창하고 근엄할 줄 알았다. 그런데 정반대였다. 너무나 소박했다. 사람에게 너무 많이 찻잎을 내어 주어서 늙고 구부러진, 아낌없이 주는 나무 같은 모습이었다. 할머니 같고 할아버지 같은 모습, 천 년을 살아도 그저 겸손한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다. 한참을 차왕수를 바라보면서, 차나무의 마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했다. 차와 사람을 잇는 연결자가 되겠다고 결심했다.

2019년은 특히 가물어서 차나무의 찻잎 소출량이 예년의 반밖에 되지 않았다. 그만큼 찻잎에 차기운이 농축되고 달았다. 포랑산 남나산 최소 백년 이상 된 고차수 차나무를 찻잎을 딸 때부터 직접 확인하고, 고차수 봄 첫잎으로 전 과정 수공으로 만든 보이차, 교수에서 차인으로 제2의 인생을 살면서 차왕수에 인사를 드리는 마음으로 만든 보이차, 좋은 차가 사람을 치유하는 힘을 믿고, 작품을 만들듯 정성으로 만든 보이차가 바로 백년고차 보이차이다.

〈잇다it茶 대표〉